영재교육연구 제 23 권 제 1 호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13. Vol 23. No 1, pp. 1~24
http://dx.doi.org/10.9722/JGTE.2013.23.1.1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교사관찰정보지(OSTG)의 구인타당화

원 영 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국내 영재교육 판별에 교사관찰추천제가 적용되고 있다. 교사관찰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정 영재성을 가려낼 수 있는 양적·질적 판별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 조건이다. 이 연구는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양적 검사도구로서의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 문항을 수렴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였고,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OSTG-2의 최종 22문항을 수렴할 수 있었고, 교사관찰 시 평가준거로 설정 가능한 음악(국악)영재성의 심리학적 구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STG-2에 대한 내적일관성 신뢰도 추정 결과, 높은 신뢰도 수준(음악성 문항 r=.852, 창의성 문항 r=.894, 과제집착력 문항 r=.924)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타당화 결과는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가 영재판별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용 검사도구임을 반영해준다.

주제어: 국악영재성, 음악영재성, 교사관찰정보지, 선별, 타당화

I. 서론

2002년 시행령과 함께 시작된 국내의 영재교육이 십여 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수학 과학을 포함한 예술영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그만큼 예술영재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다면적 연구의 결과가 실제 영재교육현장에 적용된 사례 중 하나가 교사관찰추천 판별 방식의 도입이다. 교사관찰추천제의 도입 배경에는 사교육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실기기량 중심의 주관적 판별로부터 탈피하여 영재에게 내재된 잠재성과 창의성, 동기적 측면에 초점을 둔 객관적인

교신저자: 원영실(yewon97@hanmail.net)

* 이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2011) 연구기금 지원에 의해 수행된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 및 교사 관찰정보지의 타당화' 연구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음.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가 구분되어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제목에 '음악(국악) 영재성'으로 명시하였음.

판별을 지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 결국 교사관찰추천제는 향후 예술영재교육 현장에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서 시행된 교사관찰추천제는 4단계로 진행된다. 1, 2단계의 선별은 추정 영재가 재학하는 학교에서 수행되며 3, 4단계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수행한다. 즉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영재성 선별이 해당 학생의 학교 교사에 의하여 수행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영재교육 수혜를 원하는 학생의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가 해당 학생의 잠재된 영재성을 정확하게 관찰 보고하지 못하면 관찰추천 결과의 타당성은 첫 단계부터 미확보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교사관찰추천제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서울시 교육청에서 투입한 교사 관찰추천 양식을 받아 든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보고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하는 상황이 관찰되었다. 특히 예술영재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선 교사의 경우 예술영재성 보고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그에 따라 영재성 관찰을 위한 상세한 평가준거 및 실질적 검사도구를 시·도 교육청 및 전문 연구기관에 요구하는 교사들도 많이 있었다(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11).

이에 이 연구는 국악을 포함한 음악 영재성 구인을 설명하는 교사관찰정보 문항을 수렴하고, 해당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타당화 과정을 거친 교사관찰정보지(OSTG)는 음악(국악)영재성에 대한 일선 교사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판별 첫 단계인 교사의 관찰보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심리적 부담과 어려움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비교적 정확하고 타당한 교사 관찰보고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타당화를 거친 교사관찰정보지는 지금까지의 관찰보고 절차에서 드러났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교사의 관찰 보고 시, 학생의 음악(국악) 수상 실적을 기입해야 하는지, 해당 분야 학업성취도를 기입해야 하는지, 음악(국악)영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과 관련된 현장 교사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연구는 '음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교사관찰정보지(1차, OSPG-1)의 개발 및 적용(원영실, 2011)' 연구의 후속 연구를 담당한다. 연구자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전통음악을 포함한 음악 영재성 선별을 위한 교사관찰정보지(1차, OSTG-1)의 문항을 개발하고 그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개발된 교사관찰정보지(1차, OSTG-1)의 교육적 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구인타당도 검증 및 신뢰도 추정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선행 개발된 OSTG-1의 문항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영재판별 현장에 즉각적으로 투입 가능한 교사관찰 보고용 검사도구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는 전통음악 및 음악 영재교육 현장의 일선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영재로 추정되는 학생의 교사는 잠재된 예술영재성의 추적 보고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는 추정 영재의 부모가 놓칠 수 있는 영재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존재이다. 국내의 경우 사교육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기존 영재판별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영재의 잠재능력 및 창의성, 동기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친 교사의 체계적 관찰추천이 제안되었다. 즉 일회적 지필평가 혹은 실기평가가 아닌 교사의 장기간에 걸친 관찰추천 방식을 활용한 영재판별은 사교육에 의해 조형된 학습된 영재를 가려내고 특목고를 포함한 상급학교 진학용 수단으로 전락한 영재교육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선발방법으로 수용되었다.

영재성 추적을 위한 교사관찰은 가시적인 영재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영재의 잠재성에 초점을 둔 판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환언하면 잠재성 추적을 위한 교사의 역할 및 보고는 판별 전 과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변인이다.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교사의 관찰 예측률을 판별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70~80% 판별 적중률이 있는 것(이인호, 한기순, 2009)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또한 교사의 관찰은 뚜렷하고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영재의 행동 특성을 확인하기에 매우 적합(Sanborn, 1977)하다는 보고도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나아가 영재성은 일회적 검사결과에 의하여 발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교사의 관찰을 통하여 잘 발견될 수 있고, 교사가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 특성에 대해 판단하도록 할 때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판별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Tannenbaum, 1983)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미국 국립영재연구소의 영재판별은 전체 영재교육 대상자의 약 50%를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판별하고 나머지 50%는 교사의 관찰추천으로 판별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이렇듯 교사의 관찰을 활용한 영재판별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재교육 현장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제안된 음악(국악)영재성 판별 모형은 양적·질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원영실, 2011). 양적 평가는 학습된 영재성에 초점을 둔 기존의 음악(국악)영재 판별로부터 탈피하여 영재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성을 가장 정확하게 선별하고 앞으로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해 줄 수 있는 평가방법을 의미한다. 양적 평가에 활용되는 문항은 영재가 지니고 있는 심리학적 구인을 준거로 하여 타당하게 개발되며, 평가결과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수치로 표현된다. 상대적으로 질적 평가는 수치로 나타내기에 무언가 충분하지 못한 복잡한 심리학적 구인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전문가 관찰의 결과를 활용한 평가방법을 의미한다. 음악(국악)영재성 구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판별은 마땅히 양적·질적 평가를 모두 투입하여 실행할 때 가장 타당도가 높은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적 평가의 범주는 무엇으로 할 것이며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질적 평가의 범주에는 무엇이 투입될 수 있을지의 문제가 남는다. 상기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양적 평가란 타당한 절차에 의하여 개발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종 검사지를 활용한 평가를 의미하며, 음악(국악)적성검사나 영재의 부모나 교사가 지필로 보고하는 관찰정보지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 국내 양적 검사도구 현황을 보면 음악적성검사(현경실, 2004)와 국악적성검사(원영실, 2009),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용 부모관찰정보지(원영실, 2011)가 개발되어 있다. 질적 평가는 영재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평가, 단순한 실기기량에 초점을 두지 않은 잠

재능력에 대한 실기평가, 수일에 걸쳐서 수행되는 전문가 입회하의 캠프를 활용한 질적 보고와 같은 방법의 평가를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는 예술영재의 판별은 대부분 질적평가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학습되지 않은 잠재성 및 영재에게 내재된 창의성을 타당하게 판별하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음악(국악) 영역의 경우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는 거의 배제되어 있으며, 실기평가는 잠재력의 추적을 위한 목적에서 구성되기보다 이미 학습된 음악적 기량 중심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존의 영재성 판별 오류를 시정하고 창의성 및 잠재성 평가를 위한 예술영재 캠프 방식을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그것 역시 특정 계층의 선행 학습된 영재를 선별하고 판별하는 상황으로부터 그리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좀 더 타당한 질적 평가 방법의 도입을 위해서는 장시간에 걸쳐서 영재성을 추적할 수 있는 영재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평가, 기술 중심의 실기평가로부터 탈피하여 영재의 잠재성 및 창의성을 가려내어 줄 수 있는 실기평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재성에 대한 타당성을 전문가적인 안목과 직감으로 판별해줄 수 있는 숙련되고 공정한 영재교육 전문가의 질적 보고와 같은 방식이 모두 융합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기의 음악(국악)영재성 판별 모형에서 교사의 관찰보고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두 측면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음악(국악)영재성에 대한 학교현장 교사의 이해 부족을 고려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음악(국악) 전문가의 관찰보고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결국 질적 평가로써 교사관찰보고의 타당성은 하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교사관찰추천제의 기능화를 위해서는 일선 학교 교사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인 교사관찰정보지(OSTG)의 개발이 필수적 과제이다. 환언하면 국내 음악(국악)영재성 판별이 지니고 있는 제한점을 점차 극복할 수 있는 판별 방안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관찰보고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통음악을 포함한 음악영재성에 대한 현장교사의 이해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추정 영재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된 음악(국악)영재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또한 객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현장교사용 평가 도구만 구비된다면, 기존 음악(국악)영재 판별이 지니고 있던 제한점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실기기량 중심의 선행 학습된 음악(국악)영재성이 부각된 판별이나 소수의 평가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판별의 주관성, 담임교사의 추천서가 투입되는 판별과정에서 전통음악을 포함한 음악영재성에 대한 일선 교사의 이해 부족 등의 한계점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더욱 타당한 판별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영재성은 타 영역 영재성에 비하여 비교적 어린 시기에 발현되고 그만큼 조기에 관찰 가능한 심리학적 구인이다. 음악영재에게 내재되어 있는 음악성 및 창의성, 동기적 특성은 연령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관찰된다. 예컨대 음과 리듬에 대한 즉각적인 지각능력은 영재가 성장하면서 보다 정교한 인지능력으로 발달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어린 시기에는 음악적 창의성뿐만 아니라 일반창의성의 속성도 비교적 잘 드러나지만 성장하면서 일반창의성보다는 음악적 표현성 및 즉흥연주, 작곡과 같은 속성으로 발달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어

린 시기에 비교적 다양한 음악에 관심을 보였던 음악영재의 동기는 성장하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영역의 음악이나 악기에 집중하는 속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국악영재의 경우 어린 연령대에는 음악영재와 유사한 영재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등연령이 되면서 영재자신의 동기적 특성에 따라 국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원영실, 2009, 2011). 이와 같은 음악영재성의 발달 특성은 곧 연령대를 고려한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용 관찰정보지 문항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 타당화연구의 모집단은 현재 국악이나 서양음악을 전공하고 있거나, 잠재력이 우수하여 향후 음악(국악)분야로의 진학을 원하는 잠재적 음악(국악)영재의 교사이다. 현재 음악(국악)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에 투입되어 있는 교사를 포함하여 예술계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음악(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의 교사, 앞으로 전공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교사가 이 연구의 대상이다. 특히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국악)영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국내의 교육현실을 고려하여 중등연령에 속하는 음악(국악)영재의 교사 집단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 들어 초등 연령대상의 음악(국악)영재교육도 투입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령대별 음악(국악)영재성의 특성이 다르게 관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초등 연령보다 더욱 높은 비율로 운영되고 있는 중등 연령의 음악(국악)영재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 연구의 표본집단은 서울소재 S예술 중·고등학교와 NT예술 중·고등학교, 경기도 소재 K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국악 및 서양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영재의 교사이다.

이 연구에서 타당화의 대상인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문항분석을 위하여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OSTG-2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OSTG-2의 연구대상은 총 195명으로, 국악영재 100명과 서양음악영재 95명의 교사로 구분된다. OSTG-2의 연구대상자 구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OSTG-2 타당화를 위한 연구대상 구성

구분	국악	서양음악
영재 교사	100명	95명
합계 195명		

서울 소재 S예술 중·고등학교와 NT예술 중·고등학교, 경기도 소재 K예술 중·고등학교 학생을 음악(국악)영재 집단으로 설정한 근거는 실제로 높은 경쟁력을 통하여 선발된 그들

의 음악적 능력이 일반학교 학생에 비해 우수한 것이 사실이며, 그들이 성장하여 대학의 예술학부로 진학하고, 졸업 후 국악이나 서양음악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실제 현상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악(국악)영재의 교사라 함은 <표 1>에서 보이는 영재의 교사를 의미하며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는 <표 1>에서 보이는 영재의 교사를 대상으로 투입되는 검사지를 의미한다. 유효 사례에 해당되는 연구대상자 총 195명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OSTG-2 타당화 연구의 연구대상 특성

구 분		국악영재		서양음악영재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교사 재직 기간	10년 미만	49	49.5	31	33.0
	10년 이상~20년 미만	33	33.3	37	39.4
	20년 이상~30년 미만	12	12.1	16	17.0
	30년 이상~40년 미만	3	3.0	6	6.4
	40년 이상	2	2.0	4	4.3
	무응답	2	0.1	0	0.0
학생의 전공	국악 전공	98	98.0	0	0.0
	서양음악 전공	0	0.0	95	100.0
	일반	2	2.0	0	0.0
교사의 전공	국악기악	72	72.0	0	0.0
	국악성악	20	20.0	0	0.0
	국악작곡	3	3.0	0	0.0
	국악이론	2	2.0	0	0.0
	서양음악 기악	0	0.0	70	74.0
	서양음악 성악	1	1.0	19	20.0
	서양음악 작곡	0	0.0	5	5.3
	기타	0	00	2	0.7
학생의 전공레슨 시작시기	유치원(혹은 그 이전 시기)	3	3.0	11	11.7
	초등학교 1~3학년	5	5.0	11	11.7
	초등학교 4~6학년	28	28.0	57	60.5
	중학교 시기	39	39.0	15	16.0
	고등학교 시기	25	25.0	0	0.0
	무응답	0	0.0	1	0.1
학생의 전공레슨 지속시기	6개월 미만	3	3.0	1	1.1
	1년 미만	19	19.0	15	15.8
	1년 이상~2년 미만	23	23.0	34	35.8
	2년 이상~3년 미만	27	27.0	20	21.1
	3년 이상	28	28.0	25	26.3
교사의 학력	대학원 졸업	81	81.0	94	98.9
	대학 졸업	18	18.0	1	1.1
	고등학교 졸업	1	1.0	0	0.0
전체		100	51.3	95	48.7

OSTG-2 문항에 대한 최종 응답자 195명의 교사 재직기간을 보면, 국악영재의 경우 10년 미만 49.5%, 10년 이상~20년 미만 33.3%, 20년 이상~30년 미만 12.1%, 30년 이상~40년 미만 3.0%로 나타났다. 즉 국악영재교사의 대부분(82.8%)이 교직경력 10년 미만 혹은 10년 이상~20년 미만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서양음악영재의 경우 10년 미만 33.0%, 10년 이상~20년 미만 39.4%, 20년 이상~30년 미만 17.0%, 30년 이상~40년 미만 6.4%로 나타났다. 국악영재교사의 경우와 같이 서양음악영재교사의 대부분(72.7%)이 교직경력 10년 미만이거나 10년 이상~20년 미만의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교사의 전공영역을 보면, 국악영재 교사의 경우 국악기악이 72.0%로 월등히 높았다. 서양음악영재 교사의 경우도 기악전공이 74.0%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세부전공 영역(작곡이나 이론 등)보다 특별히 기악전공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의 음악문화 상황을 반영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학생의 전공레슨 시작시기를 보면, 국악영재의 경우 유치원~초등학교 시기가 36.0%, 중학교 시기 39.0%, 고등학교 시기 25.0%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교사가 전공레슨을 담당한 교사이기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해당 학생의 수업을 시작한 시기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악영재와는 상대적으로 서양음악영재는 유치원~초등학교 시기에 시작하였다는 응답(83.9%)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악영재보다 서양음악영재가 더 어린 시기부터 전공레슨 교육을 시작한다는 점, 환언하면 서양음악영재에 비하여 좀 더 늦은 시기에 시작되는 국악영재교육의 특성(원영실, 2008)을 반영해준다. 학생의 전공레슨 지속기간을 보면, 국악영재의 경우 1년 이상~2년 미만 23.0%, 2년 이상~3년 미만 27%, 3년 이상 28%의 응답률을 보였다. 서양음악영재는 1년 이상~2년 미만 35.8%, 2년 이상~3년 미만 21.1%, 3년 이상 26.3%의 응답률을 보였다. 교사가 응답한 전공레슨 시작시기 및 기간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 이유는 표집원이 예술계 중·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는 어린 연령대에 전공레슨을 시작하지만 예술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로 전공지도교사를 변경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을 경험한다. 즉 전공지도교사가 표집원을 포함한 다른 교사로 변경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러한 응답이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의 학력을 보면 국악영재교사나 서양음악영재교사 모두 대학원 졸업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을 반영해주는 결과다.

2. 측정 도구: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용 교사관찰정보지(OSTG)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용 교사관찰정보지(OSTG)는 OSTG-1과 OSTG-2로 구분된다.

먼저 OSTG-1은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의 교사를 대상으로 투입하는 검사지로 원영실(2010, 2011)에 의해 제작되었다. 처음 제작될 당시의 OSTG-1은 10인의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0인의 전문가 집단은 국악 및 음악교육 전문가(K예술종합학교 재직 교수 2인, C교육대학 재직 교수 2인, K예술고등학교 교장 1인), 영재교육 및 교육평가 전문가(Y대학 재직 교수 2인), 현장의 음악교사(예술계 중·고등학교 교사 및 강사 3인)이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구성된 예비문항을 10인의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후 수정 사항을 회신받았다. 또한 문서상 이해가 되지 않

는 부분은 회의와 온라인상의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시켰다. 10인의 전문가 집단이 제출한 최종의견서를 바탕으로 OSTG-1의 문항을 수정 및 재구성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입회하에 2회의 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OSTG-1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이루어진 5단계 Likert식 척도이며,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의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을 원하는 교사가 직접 자기 보고하는 형식의 검사지다. OSTG-1의 하위 영역은 4개의 대영역(음악성, 창의성, 과제집착력, 학생에 대한 기대)과 9개의 소영역(리듬인지, 소리인지, 신체협응, 음악(국악)이해력, 표현성, 즉흥연주 및 작곡, 열정, 집중력, 인내심)으로 구성되었다. OSTG-1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수준은 *Cronbach' α*=.604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신뢰도 수준은 *Cronbach' α*=.008~.936까지 나타남으로써, OSTG-1의 실제 교육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신뢰도 추정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OSTG-2는 OSTG-1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번 연구를 위해 재구성된 검사지다. OSTG-1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50개의 문항은 총 42개의 문항으로 수렴되었다. 그러나 수렴된 42개의 문항에 대한 문항평가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11개의 문항이 제거되고 최종 31개의 문항으로 재수렴됨으로써 OSTG-2의 문항이 구성되었다. 문항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하여 4개의 대영역 중 학생에 대한 기대 영역은 삭제되었고, 그에 따라 3개의 대영역(음악성, 창의성, 과제집착력)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31개의 문항 중에서 음악성 구인을 설명하는 문항은 10문항, 창의성 구인을 설명하는 문항은 9문항, 동기 구인을 설명하는 문항은 12문항이다. OSTG-1과 같이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이루어진 5단계 Likert식 척도이며, 학생의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을 원하는 교사가 직접 자기 보고하는 형태의 검사지다.

3. 연구 과정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타당화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

첫째, 선행 연구로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성의 의미를 추적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하였다. 나아가 음악(국악)영재성의 선별 및 판별 방법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별히 기존 연구 중에서 교사관찰정보에 관한 선행 연구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였다. 또한 교사관찰정보지(1차, OSTG-1)의 문항개발 연구결과를 재검토하고 해당 문항의 구성 및 교육적 적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교사관찰정보지(1차, OSTG-1)의 문항개발 시 활용된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새로 제작된 OSTG-2를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의 교사를 대상으로 투입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로 수집 정리하였다.

셋째,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문항평가를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을 포함한 기초통계 및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제작된 문항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고, *Cronbach' α* 계수를 통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추정하였다.

넷째,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를 활용하여 추정된 OSTG-2의 타당도 및 신뢰도 수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나아가 OSTG-2의 실제 예술영재 교육 현장 투입 및 적용에 관하여 최종 논의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OSTG-2의 타당화 방법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타당화를 위한 요인분석은 2차의 표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2010~2011년에 걸쳐 OSTG-1의 문항을 개발하고 개발된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31개 문항으로 수렴하였다. 하지만 설명분산량 및 내적일관성 신뢰도 추정에 있어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2차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행하였다. 즉 OSTG-2의 타당화를 위해 SPSS 18.0 및 AMOS 7.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OSTG-2 문항이 몇 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상기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요인 구조가 지지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적합도 지수인 χ^2, *CFI, TLI, RMSEA* 등의 수치들을 해석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OSTG-2의 신뢰도 검증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법 중에서 문항 간 측정의 일관성에 의해 추정되는 *Cronbach' α* 계수로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용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타당도

영재성 선별 검사도구의 핵심은 구인타당도의 확보에 있다. 구인타당도 검증은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인간의 심리적 속성이나 성질을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하여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 검사의 점수가 조작적 정의에서 규명한 심리적 구인들을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의미한다(성태제, 2005).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 문항의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탐색적 요인분석

1)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음악성 요인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음악성 문항이 몇 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에서 χ^2과 적합도를 통해 요인을 결정할 경우, 적합도 지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점에서 요인의 수가 결정된다. <표 3>에 보듯이 OSTG-2 음악성 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형의 적합도를 판

별하는 *RMSEA* 값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 즉 *RMSEA* 값이 .05 이하(*RMSEA*<.05)면 좋은 적합도이고, *RMSEA* 값이 .08 이하(*RMSEA*<.08)면 괜찮은 적합도, *RMSEA* 값이 .10 이하(*RMSEA*<.10)면 보통 수준의 적합도, *RMSEA* 값이 .10 이상(*RMSEA*>.10)이면 나쁜 적합도 지수를 의미한다(김주한, 김민규, 홍세희, 2009). 이와 같은 해석을 참고해 볼 때 OSTG-2의 음악성 문항은 그 설명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RMSEA* 값이 점차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RMSEA* 값은 점차 떨어져서 그 적합도 지수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2요인에서 3요인으로 되는 시점부터 *RMSEA* 값의 변화가 .01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모형의 적합도 차이, 즉 적합도 변화량이 .01 이하면 적합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요인 수 증가에 따른 모형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과 적은 수의 요인으로 모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OSTG-2의 음악성 문항은 2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 OSTG-2 요인 모형 적합도: 음악성

요인 모형	χ^2	*df*	*p*	*RMSEA*	*RMSEA* 변화량
1요인 모형	73.232	20	.000	.117	
2요인 모형	93.625	26	.046	.062	1요인 → 2요인: .055
3요인 모형	49.275	18	.111	.059	2요인 → 3요인: .003

2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한 결과, OSTG-2의 음악성 요인은 1요인(리듬 지각 및 인지) 3문항, 2요인(소리 지각 및 인지) 2문항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OSTG-2 음악성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 인	
	리듬 지각 및 인지	소리 지각 및 인지
문항2	.887	
문항3	.882	
문항1	.814	
문항4		
문항7		
문항6		.761
문항5		.729
문항8		

<표 4>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반하여 재정리된 OSTG-2 음악성 문항들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2요인 모형 구조에 근거한 OSTG-2 음악성 문항

대영역	소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음악성	리듬 지각 및 인지	1	나의 학생은 리듬의 변화를 잘 지각한다.
		2	나의 학생은 몸 전체로 박자를 느낀다.
		3	나의 학생은 리듬감(혹은 장단감)이 우수하다.
	소리 지각 및 인지	5	나의 학생은 한번 들은 선율에 대한 기억력이 우수하다.
		6	나의 학생은 음악(혹은 국악) 감상 시, 다양한 악기의 음색을 잘 구별한다.

2)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창의성 요인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창의성 문항이 몇 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에서 χ^2과 적합도를 통해 요인을 결정할 경우, 적합도 지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점에서 요인의 수가 결정된다. 이는 음악성 문항분석의 경우와 동일하다. <표 6>에 보듯이 OSTG-2 창의성 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형의 적합도를 판별하는 *RMSEA* 값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 *RMSEA* 값의 변화를 살펴볼 때, OSTG-2의 창의성 요인은 5요인 모형 구조가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5요인 구조에서 요인적재치가 1이 넘는 변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 OSTG-2 요인 모형 적합도: 창의성

요인 모형	χ^2	*df*	*p*	*RMSEA*	*RMSEA* 변화량
1요인 모형	169.511	35	.000	.141	
2요인 모형	93.625	26	.000	.116	1요인 → 2요인: .026
3요인 모형	49.275	18	.000	.095	2요인 → 3요인: .021
4요인 모형	22.111	11	.024	.072	3요인 → 4요인: .022
5요인 모형	8.784	5	.118	.062	4요인 → 5요인: .010

4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한 결과, OSTG-2의 창의성 문항은 1요인(일반창의성) 2문항, 2요인(표현성) 2문항, 3요인(창의적 호기심) 2문항, 4요인(즉흥연주 및 작곡) 3문항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OSTG-2 창의성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 인			
	일반창의성	표현성	창의적 호기심	즉흥연주 및 작곡
문항2	.983			
문항3	.503			
문항7		.989		
문항8		.370		
문항9			.888	
문항10			.687	
문항5				.713
문항4				.677
문항6				.483
문항1				

<표 7>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반하여 재정리된 OSTG-2 창의성 문항들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4요인 모형 구조에 근거한 OSTG-2 창의성 문항

대영역	소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창의성	일반 창의성	2	나의 학생은 또래에 비하여, '엉뚱한 생각이나 제안'으로 선생님을 놀라게 한다.
		3	나의 학생은 또래에 비하여 독특하고 개성이 있다.
	표현성	4	나의 학생은 음악(혹은 국악)을 듣고 느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즐긴다.
		5	나의 학생은 음악(혹은 국악)을 감상한 후 그 음악(혹은 국악)에 대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가한다.
		6	나의 학생은 또래에 비하여 풍부한 정서를 소유하고 있다.
	창의적 호기심	7	나의 학생은 낯선 음악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는다.
		8	나의 학생은 새로운 연주기법에 대하여 흥미를 보인다.
	즉흥연주 및 작곡	9	나의 학생은 또래에 비하여 새로운 악구를 잘 만든다.
		10	나의 학생은 새로운 음색을 잘 만들어 낸다.

표집을 위해 구성된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 창의성 문항의 소영역(하위 영역)은 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표현성과 즉흥연주 및 작곡'이 그것이다. 그러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음악(혹은 국악)영재성의 구성 요소인 창의성 구인은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4개의 하위 요인은 '일반창의성, 표현성, 창의적 호기심, 즉흥연주 및 작곡'이다. 환언하면 척도 개발 시 전문가 집단이 설정하였던 표현성과 즉흥연주 및 작곡의 하위 요인 외에, 일반창의성과 창의적 호기심 요인이 분석결과를 통하여 하위 요인으로 추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에 하위 요인으로 설정된 표현성 문항의 특성이 더욱 세분화

될 수 있음을 반영해 준다.

3)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과제집착력 요인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과제집착력 문항이 몇 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에서 χ^2과 적합도를 통해 요인을 결정할 경우, 적합도 지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점에서 요인의 수가 결정된다. 이는 음악성 및 창의성 문항 분석의 경우와 동일하다. <표 9>에 보듯이 OSTG-2 과제집착력 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형의 적합도를 판별하는 RMSEA 값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 *RMSEA* 값의 변화를 살펴볼 때, OSTG-2의 과제집착력 요인은 4요인 모형 구조가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4요인 구조에서 요인적재치가 1이 넘는 변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9> OSTG-2 요인 모형 적합도: 과제집착력

요인 모형	χ^2	*df*	*p*	*RMSEA*	*RMSEA* 변화량
1요인 모형	227.734	44	.000	.147	
2요인 모형	114.375	34	.000	.110	1요인 → 2요인: .037
3요인 모형	44.758	25	.009	.006	2요인 → 3요인: .004
4요인 모형	24.321	17	.111	.005	3요인 → 4요인: .001

3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한 결과, OSTG-2 과제집착력 문항은 1요인(음악 혹은 국악 과제에 대한 인내심) 3문항, 2요인(음악 혹은 국악 과제에 대한 열정) 2문항, 3요인(음악 혹은 국악 과제에 대한 집중력)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 결과를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OSTG-2 과제집착력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 인		
	인내심	열정	집중력
문항12	.902		
문항10	.691		
문항6	.664		
문항11			
문항2		.874	
문항1		647	
문항4			
문항5			
문항8			-.923
문항7			-.610
문항9			-.599

<표 10>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반하여 재구성된 OSTG-2 과제집착력 문항들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3요인 모형 구조에 근거한 OSTG-2 과제집착력 문항

대영역	소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과제 집착력	열정	1	나의 학생은 음악(혹은 국악) 수업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인다.
		2	나의 학생은 음악(혹은 국악)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집중력	7	나의 학생은 음악(혹은 국악) 수업을 할 때 집중도가 높다.
		8	나의 학생은 악기를 연주할 때 몰입한다.
		9	나의 학생은 음악(혹은 국악)을 들을 때 몰입한다.
	인내심	6	나의 학생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창이나 악기 연습을 스스로 한다.
		10	나의 학생은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한다.
		12	나의 학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습한다.

나. 확인적 요인분석

1)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음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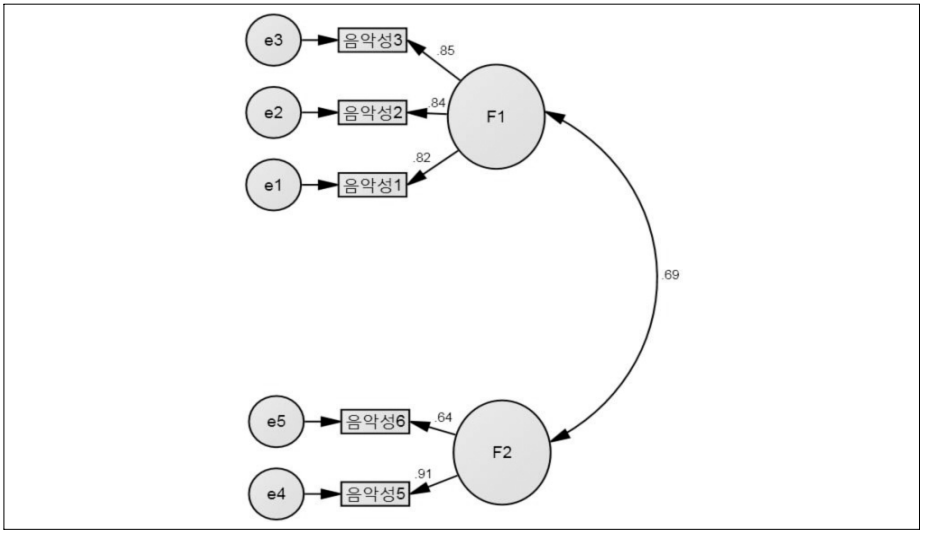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음악성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2요인 구조가 지지되었다. 이를 다시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적합도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OSTG-2 음악성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N=195)

모형	χ^2	*df*	*CFI*	*TLI*	*RMSEA*
음악성	5.052	4	.998	.991	.037

<표 12>에서 나타난 *CFI, TLI, RMSEA*의 수치들에 대한 적합도 해석 기준은, 보통 *TLI*와 *CFI*의 경우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 할 수 있다(김주환 외, 2009). *RMSEA* 값은 .05 이하면 매우 좋은 것이며, .06~.08 사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OSTG-2의 음악성 문항에 대한 요인의 모형 적합도는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음악성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OSTG-2 음악성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2)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창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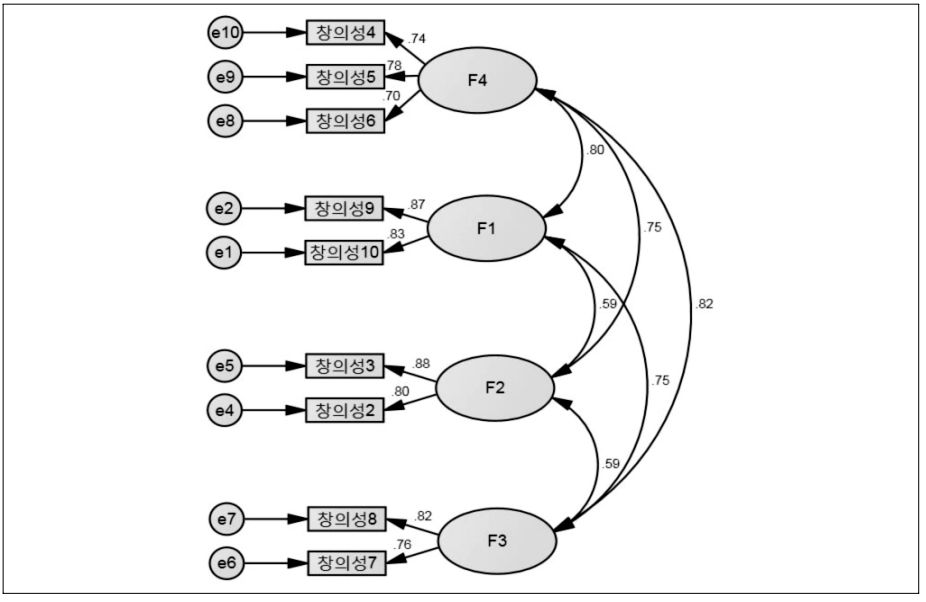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창의성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4요인 구조가 지지되었다. 이를 다시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적합도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OSTG-2 창의성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N=195)

모형	χ^2	*df*	*CFI*	*TLI*	*RMSEA*
창의성	42.434	21	.975	.947	.073

<표 13>에서 나타난 *CFI, TLI, RMSEA*의 수치들에 대한 적합도 해석 기준은, 보통 *TLI*와 *CFI*의 경우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음악성 문항분석의 경우와 동일하다. *RMSEA* 값은 .05 이하면 매우 좋은 것이며, .06~.08 사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OSTG-2의 창의성 문항에 대한 요인의 모형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창의성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OSTG-2 창의성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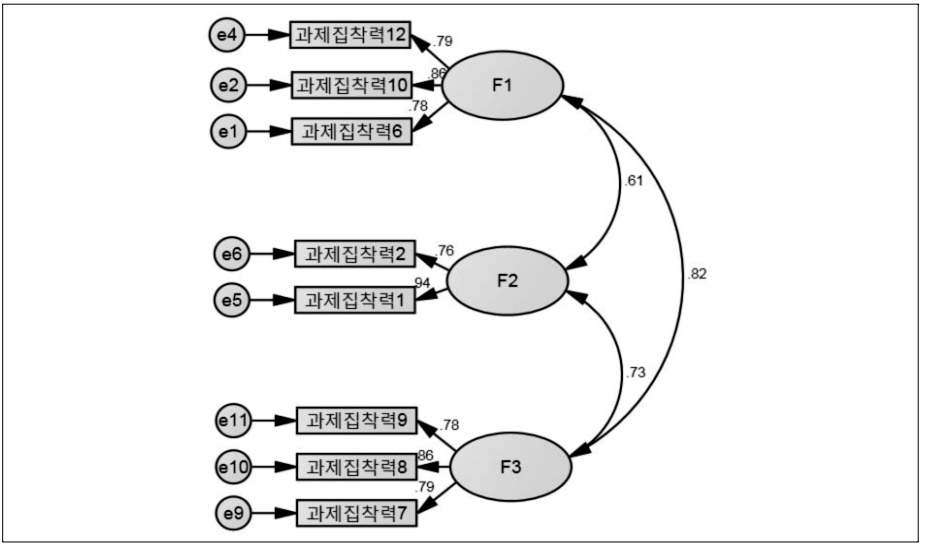
2)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과제집착력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과제집착력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3요인 구조가 지지되었다. 이를 다시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적합도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또한 과제집착력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표 14> OSTG-2 과제집착력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N=195)

모형	χ^2	*df*	*CFI*	*TLI*	*RMSEA*
과제집착력	22.233	17	.993	.986	.042

<표 14>에 나타난 *CFI, TLI, RMSEA*의 수치들에 대한 적합도 해석 기준은, *TLI*와 *CFI*의 경우 1부터 0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음악성 및 창의성 문항분석의 경우와 동일하다. *RMSEA* 값은 .05 이하면 매우 좋은 것이며, .06~.08 사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 따라서 OSTG-2 과제집착력 문항에 대한 요인의 모형 적합도는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 OSTG-2 과제집착력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2.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용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신뢰도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1회 측정으로 문항의 신뢰성을 추정하는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중에서 *Cronbach' α* 신뢰도를 구하였다. 즉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수렴된 문항에 대한 *Cronbach' α* 계수 추정 결과는 다음의 <표 15>와 같다.

<표 15> OSTG-2의 음악성·창의성·과제집착력 문항에 대한 신뢰도

대 영역	소 영역	α 계수	총 α 계수	대 영역	소 영역	α 계수	총 α 계수	대 영역	소 영역	α 계수	총 α 계수
음악성	리듬 인지	.871	.852	창의성	일반 창의성	.817	.894	과제집착력	열정	.840	.924
					표현성	.778			집중력	.858	
	소리 인지	.734			창의적 호기심	.765					
					즉흥 연주 /작곡	.840			인내심	.861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Cronbach' α* 계수를 보면, 음악성 문항에 대한 총 α 계수는 .852, 창의성 문항에 대한 총 α 계수는 .894, 과제집착력 문항에 대한 총 α 계수는 .924로 나타났다. 즉 문항의 내적일관성 추정결과 OSTG-2의 신뢰도 수준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5>에서 보듯이 음악성의 하위 영역인 리듬 지각 및 인지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871, 소리 지각 및 인지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734로 나타났다. 즉 하위 영역별 신뢰도 수준 역시 음악성 총 α 계수와 같이 높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의 하위 영역인 일반창의성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817, 표현성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778, 창의적 호기심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765, 즉흥연주 및 작곡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840으로 나타났다. 즉 창의성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 수준이 높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제집착력 하위 요인인 음악(혹은 국악)과제에 대한 열정 문항 신뢰도 수준은 .840, 음악(혹은 국악)과제에 대한 집중력 문항 신뢰도 수준은 .858, 음악(혹은 국악)과제에 대한 인내심 문항 신뢰도 수준은 .861로 나타났다. 즉 하위 요인별 신뢰도 수준 역시 과제집착력 문항의 총 α 계수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신뢰도 추정 결과는 OSTG-2의 실제 교육현장 투입이 즉시적으로 가능함을 반증해준다.

V. 결론 및 논의

서울시를 중심으로 투입된 교사관찰추천 판별의 도입 기저에는 학습된 영재성에 초점을 둔 기존 영재판별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추정 영재의 잠재능력 및 창의성, 동기적 특성에 초점을 둔 판별을 지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문제는 교사관찰추천의 합리적인 취지에 비하여 실질적인 평가 결과가 산출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 이유는 정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사전 논의 및 의견 수렴의 부재 때문이다. 특히 예술영재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 현장 교사가 1단계 선별을 담당해야 하는 점은 판별 전 과정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환언하면 관찰추천 1단계에 투입되는 교사관찰 문항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행된 정책이었기에 복잡한 판별방식의 투입에 비하여 판별의 타당성 및 효율성은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관찰추천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검사도구 및 선별 매뉴얼을 요구하는 현장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교사관찰추천제 1차 선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예술영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장교사의 선별 작업을 돕기 위하여 교사관찰정보 문항을 수렴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교사관찰정보지(1차, OSTG-1)의 문항개발은 원영실(2010, 2011)에 의하여 일정 부분 완료되었다. 그러나 개발된 문항의 구인타당도 추정에 있어서 일회성의 탐색적 요인분석에 머물렀기에 추후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개발된 문항의 타당화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타당화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예술영재교육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의 교사를 대상으로 OSTG-2 문항을 투입하였고, 수거된 표집 데이터에 대한 문항평가를 실시하였다. 탐색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OSTG-2 문항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고, *Cronbach' α* 신뢰도 계수 추정을 통하여 OSTG-2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 문항의 타당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의 첫 번째 하위 요인인 음악성 문항은 2요인으로 묶였다. 2요인은 리듬 지각 및 인지와 소리 지각 및 인지이다. 2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한 결과, OSTG-2의 음악성 문항은 리듬 지각 및 인지 3문항과 소리 지각 및 인지 2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처음에 표집용 검사지로 편집된 OSTG-2 음악성 문항은 3요인으로 구성되었다. 3요인은 '리듬 지각 및 인지, 소리 지각 및 인지, 음악이해력'이다. 하지만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리듬과 소리의 지각 및 인지 요인은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지만, 음악이해력 요인은 연구진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다. 즉 음악이해력을 설명하는 심리학적 구인으로 구성되었던 음악의 구조 이해 능력이나 초견 능력은 음악성 선별을 위한 하위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 교수학습 현장에서 관찰되는 음악 구조 이해력과 초견 능력을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의 준거로 채택할지의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반증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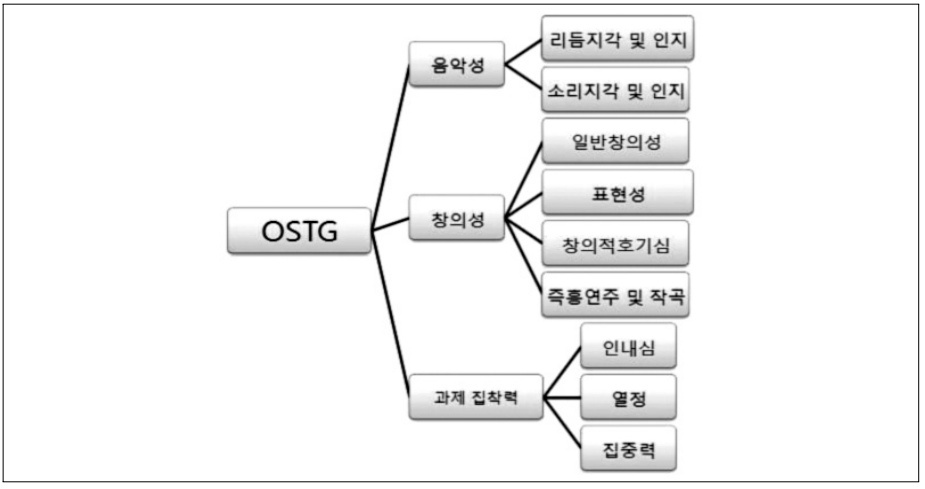
OSTG-2의 두 번째 하위 요인인 창의성 문항은 4요인으로 묶였다. 4요인은 일반창의성, 표현성, 창의적 호기심, 즉흥연주 및 작곡이다. 4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한 결과, OSTG-2의 창의성 문항은 일반창의성 2문항, 표현성 2문항, 창의적 호기심 2문항, 즉흥연주 및 작곡 3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표집을 위하여 처음에 구성된 OSTG-2 창의성 문항의 하위 영역은 2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표현성과 즉흥연주 및 작곡'이 그것이다. 그러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창의성 구인은 상기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환언하면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 집단이 설정하였던 '표현성과 즉흥연주 및 작곡'의 하위 요인 외에, '일반창의성과 창의적 호기심' 요인이 분석결과를 통해 하위 요인으로 추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에 하위 요인으로 설정되었던 표현성 문항의 특성이 더욱 세분화 될 수 있음을 반증해 준다.

세 번째 하위 요인인 과제집착력 문항은 3요인으로 묶였다. 3요인은 음악(국악)과제에 대한 인내심, 열정, 집중력이다. 3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한 결과, OSTG-2의 과제집착력 문항은 인내심 3문항, 열정 2문항, 집중력 3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OSTG-2의 하위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결국 [그림 4]의 하위 요인을 통하여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에 적용될 수 있는 심리학적 구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하위 요인들은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평가 준거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음악성 문항에 대한 적합도 지수가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적합도 지수 *RMSEA*는 .037, *TLI*는 .991, *CFI*는 .998로, OSTG-2 음악성 문항에 대



[그림 4] OSTG-2 하위 요인

한 요인의 모형 적합도는 매우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창의성 문항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적합도 지수 *RMSEA*는 .073, *TLI*는 .947, *CFI*는 .975로 나타남으로써 OSTG-2 창의성 문항에 대한 요인의 모형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제집착력 문항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적합도 지수 *RMSEA*가 .042, *TLI*는 .986, *CFI*는 .993로, OSTG-2 과제집착력 문항에 대한 요인의 모형 적합도는 매우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STG-2 문항에 대한 신뢰도 추정 결과를 보면, 음악성 문항에 대한 총 α계수는 .852, 창의성 문항은 .894, 과제집착력 문항은 .924로 나타났다. 즉 문항의 내적일관성 추정 결과 OSTG-2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음악성의 하위 요인인 리듬 지각·인지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871, 소리 지각·인지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734로 나타남으로써 음악성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 수준 역시 총α계수와 같이 높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의 하위 요인인 일반창의성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817, 표현성 문항은 .778, 창의적 호기심 문항은 .765, 즉흥연주 및 작곡 문항은 .840으로 나타남으로써 창의성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 수준이 높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제집착력 하위 요인인 음악(국악)과제에 대한 열정 문항 신뢰도 수준은 .840, 음악(국악)과제에 대한 집중력 문항은 .858, 음악(국악)과제에 대한 인내심 문항은 .861로 나타남으로써 과제집착력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 수준 역시 총 α계수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추정 결과는 OSTG-2의 실제 교육현장 투입이 즉시적으로 가능함을 반영해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타당화를 거친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는 선행 학습된 영재성에 초점을 두었던 음악(국악)영재성 선별로부터 탈피하여 음악(국악)영재의 잠재성과 창의성, 동기 수준을 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검사도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OSTG-2는 기존의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 방법에 녹아 있던 '실기기량에 초점을 둔 평가자의 주관성'과 '음악(국악)영재성 구인에 대한 일선 교사의 이해 부족'이라는 제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평가 도구이다.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는 음악(국악)영재성에 녹아있는 심리학적 구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검사도구이다. 교사가 음악(국악)영재성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선행 조건이다. OSTG-2는 교사의 선별작업을 위한 조작적 정의를 가능하게 한 평가 도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음악(국악)영재성의 속성으로 '음악성, 창의성, 과제집착력' 구인이 설정될 수 있음을 증명해준 검사도구이며, 나아가 음악성의 하위 요인으로 '리듬 및 소리에 대한 지각 및 인지 능력', 창의성의 하위 요인으로 '일반창의성, 표현성, 창의적 호기심, 즉흥연주 및 작곡', 과제집착력의 하위 요인으로 '인내심, 열정, 집중력'의 심리학적 구인이 설정될 수 있음을 검증해 준 검사도구이다.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지금까지 예술영재성 판별 현장에 접근 가능성이 희박했던 잠재적 음악(국악)영재에게 선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검사도구이다. 음악(국악)영재의 심리학적 구인을 설명하는 객관적인 문항을 통한 선별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사교육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기존 선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교육의 경험이 없는 잠재적 영재를 가려낼 수 있는 검사도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은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는 국내의 음악(국악)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검사도구이다.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투입된 교사관찰추천 판별 1단계에 투입 가능한 검사도구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별 1단계의 타당성 확보는 후속되는 판별과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관찰정보지(2차, OSTG-2)는 기존 판별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영재의 잠재 능력을 선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OSTG-2를 활용한 평가 결과가 곧 음악(국악)영재에게 내재되어 있는 음악(국악)영재성을 완벽하게 선별해 주었다고 보기에는 제한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OSTG-2가 제시하는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넓은 범위의 잠재적 음악(국악)영재를 선별한 후, 후속 판별과정을 통해 해당 영재성을 보다 정교하게 들여다 볼 때, 더욱 타당한 음악(국악)영재성 판별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주한,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성태제 (2005). **현대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원영실 (2008). 국악영재 판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음악과 문화, 19**, 109-146.

원영실 (2009). **국악영재 판별을 위한 가락 및 리듬 인지능력 검사도구 개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원영실 (2011). 음악(국악) 영재 판별을 위한 부모관찰정보지의 문항개발 및 적용. **음악교육연구, 40**(1), 241-273.

원영실 (2011). 음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교사관찰정보지의 개발 및 적용. **음악과 문화, 25**, 147-176.

원영실 (2011). 음악(국악) 영재성 판별 모형. **한국음악연구, 49**, 165-201.

한국교육개발원 (201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사 관찰・추천제 바로알기**. 한국교육개발원 학부모 설명 자료.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10). **음악영재 진단평가 모형 개발 -국악 및 서양음악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계문사.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11). **예술영재의 관찰추천 판별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계문사.

현경실 (2004). **한국음악적성검사**. 서울: 학지사.

= Abstract =

The Construct Validation of the OSTG-2 for Screening of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Won, YoungSil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The OSTG (Observation Scale for Teachers of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is one of the tools for screening of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So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OSTG-2 has an influence on securing validity of the whole identification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OSTG-2 that input screening processing, and to suggest systematization of identification processing for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For the achievement of this purpose, this study administered the OSTG-2 to 195 teachers of gifted students aged between 13 and 16 in the middle or high school for the arts. To validate the OSTG-2, I analyzed items of the OSTG-2, and conducted the exploratory and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I also examined the internal consistency. As a result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 collected 22 items of the OSTG-2 finally. Furthermore, I could identify psychological construct of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The consequence of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the model provided good fit to observed data. As a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the internal consistency of musicality verified *cronbach' α*=.852, and the creativity verified *cronbach' α*=.894, the task commitment verified *cronbach' α*=.924. This result of validity study reflects the fact that the OSTG-2 is a valid scale and is able to input to gifted educational field instantly.

Key Words: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The Observation Scale for Teachers of the Gifted(OSTG), Screening, Validation

1차 원고접수: 2012년 11월 9일
수정원고접수: 2012년 12월 24일
최종게재결정: 2012년 12월 26일

[부 록]

<응답 요령>

문항의 내용에 대하여 귀하의 학생이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지 않다(1점)/그렇지 않다(2점)/보통이다(3점)/그렇다(4점)/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해당되는 란에 **∨표시로 체크**해 주십시오.

선별 준거				정 도				
대 영역	소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음악성	리듬	1	나의 학생은 리듬의 변화를 잘 지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학생은 몸 전체로 박자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학생은 리듬감(혹은 장단감)이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소리	4	나의 학생은 한 번 들은 선율에 대한 기억력이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학생은 음악(혹은 국악) 감상 시, 다양한 악기의 음색을 잘 구별한다.	①	②	③	④	⑤
창의성	일반 창의성	6	나의 학생은 또래에 비하여 '엉뚱한 생각이나 제안'으로 선생님을 놀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학생은 또래에 비하여 독특하고 개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표현성	8	나의 학생은 음악(혹은 국악)을 듣고 느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학생은 음악(혹은 국악)을 감상한 후 그 음악(혹은 국악)에 대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학생은 또래에 비하여 풍부한 정서를 소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창의적 호기심	11	나의 학생은 낯선 음악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의 학생은 새로운 연주 기법에 대하여 흥미를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즉흥 연주·작곡	13	나의 학생은 또래에 비하여 새로운 악구를 잘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학생은 새로운 음색을 잘 만들어 낸다.	①	②	③	④	⑤
과제 집착력	열정	15	나의 학생은 음악(혹은 국악) 수업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의 학생은 음악(혹은 국악)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집중력	17	나의 학생은 음악(혹은 국악) 수업을 할 때 집중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의 학생은 악기를 연주할 때 몰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의 학생은 음악(혹은 국악)을 들을 때 몰입한다.	①	②	③	④	⑤
	인내심	20	나의 학생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창이나 악기 연습을 스스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학생은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학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